

# 한 겹 천막 속에서 오롯이 나를 마주하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위례 상월선원 1박2일 수행 체험기

혹독한 추위와 공사장 소음은 지극껏 경험 못한 악조건  
불자들 격려·독경에 위안...그동안의 편함 돌아보는 계기  
'천막결사' 문 열리는 날 한국불교 일깨우는 죽비 울리길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다. 굶주리고 추울 때라야 도를 닦고자하는 마음이 강렬해지는 법이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그렇다. 지난 11월11일, 동안계 결제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지승 스님을 비롯해 아홉 스님들이 황량한 별판에 천막을 치고 3개월 안거에 들었다. 조계종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으로 8년간 분조를 쪼개며 살았던 지승 스님이 소임내려놓기 무섭게는 쌓인 백담사 무문관(無門關)에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해제 뒤 만난 스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20kg 넘게 빠진 몸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흠뻑해져 있었고, 깊게 들어간 눈에서는 성성한 빛이 났다. 갇힌 공간에서 생기는 탐욕은 오로지 식탐으로 발현된다. 스님은 그 욕망의 실체를 보고 철저하게 음식을 줄이는 것으로 탐욕을 제어했다. 몸을 비우는 것으로 현실적 욕망을 비워낸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내리 2반을 백담사에서 보낸 뒤 이제는 다른 여덟 스님들과 황량한 별판에 천막을 치고 극한(極寒)의 수행결사에 들어갔다. '고불문'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하루 한 기 공양에, 양치만을 허용하고, 한 벌의 옷을 입고 묵언한 채 하루 14시간을 정진하고 있다. 목숨을 위협하는 추위에도 난방을 거부했다. 따뜻한 옷과 잠자리와 쌓아온 명성을 뒤로한 채 스스로를 천막에 가두고, 추위와

굶주림을 벗 삼아 용맹정진하고 있다. 12월22일 상월선원으로 향했다. 50일 가까운 스님들의 용맹정진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체험관은 스님들의 공간 옆에 나란히 마련돼 있었다. 온기 없는 천막에 좌복과 텐트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묵언명패를 목에 거는 순간 밖에서 열쇠가 잠겼다. 싸한 기운이 몸 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자유를 잃어버린 답답함이었는지, 세상과 단절된 고독감이었는지 알 길은 없다. 하루 14시간 정진은 잠시의 쉴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루 두 번, 1시간씩 주어지는 울력 시간과 1시간의 공양, 그리고 예불과 4시간의 취침을 빼면 대부분의 시간은 참선이였다. 좌복 위에서의 시간은 어렵고 더웠다. 처음엔 마음을 제어하기 힘들었다. 몸은 좌복 위지만, 생각은 산더미 같은 일들을 헤집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육체의 고통이 심해졌다. 발은 수시로 저리고,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서걱거렸다. 그러자 생각은 절로 비워졌다. 온통 아픔에만 마음이 쏠렸다. 특히 서너 달 전부터 아파오던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통증을 견디다 어느 순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반성이 절로 일었다. 참회의 마음이 들었다. 아픔의 전조들은 그동안 많았다. 그런데도 방치했다. 어깨가 아를 쓰고 서야 그 아픔을 돌아보게 됐다. 어깨를 어루만졌다.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잘



법보신문 김형규 대표는 12월22일 상월선원 체험관에서 1박2일 정진에 동참했다.

살피겠다고, 그러니 화를 풀라고. 상월선원에 어둠은 일찍 내렸다. 해가 떠나버린 천막엔 어둠과 추위가 내려앉았다. 한기는 뺏속까지 찾아들었다. 추위 이야기가 많았던 터라 내복에 두꺼운 패딩과 바지, 스키장갑까지 준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겨우겨우 견디다 잠자리에 들었다. 좁은 텐트 안 침낭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딱히 잠이 든 기억은 없다. 그냥 비몽사몽이었다. 새벽 도량석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침 예불을 모신 후 다시 좌복에 앉았다. 그러자 주변에서 돌 깨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천막의 바닥도 돌 깨는 소리와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굴착기 소리에 쇠 가는 소리까지. 이곳이 바로 위례 신도시 아파트 공사장 한복판임이 실감났다.

소음이 심해질 때면 '금강경' 독송이 울리고, 전장 스님 법문이 시작됐다. 또 상월선원을 찾은 불자들의 격려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집중하다보면 소음은 가라앉고 마음은 편안해졌다. 천막 안과 밖 공간은 다르지만 불자라는 거대한 인연 한복판에 내가 있음에 감사했다. '금강경' 경구 하나하나가 새록새록 가슴에 와 닿고 불자들 격려가 마치 나를 향하는 것 같았다. 아침 10시, 문이 열리고 세상으로 나왔다. 1박2일 짧은 체험이었다. 그럼에도 작은 깨우침이 있었다. 매너리즘에 빠진 나를 돌아보게 됐고, 불편함 속에서 내가 누린 편안함을 생각하게 됐다. 무엇보다 극한의 수행을 통해 아홉 스님들이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한국불교의 미래에 굴뚝하게 됐다. 수행력이 남다른 스님들이라지만, 배고픔과 극한의 추위, 공사현장의 엄청난 소음, 그리고 갇혀 있음의 답답함과 공포는 해제 때까지 적시해야할 큰 장애다. 그래서 격정과 우려가 크다. 무탈하게 회향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천막결사 정진이, 희미해져버린 한국불교의 수행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 본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고행하느냐며 타박하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그들에게 황백 스님의 시를 들려주고 싶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니/승도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 할지어다./추위가 한 번 뺏에 사무치지 않고서야/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 얻을 수 있으리오. 2월7일 상월선원 천막의 문이 열린다. 아홉 스님들을 전한 매화향기로 다시 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김형규 대표 kimh@beopbo.com

##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회향

12월25일 3만여 대중 운집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12월25일 '제49회 화엄산림 회향법회<사진>'를 봉행했다. 3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석에서는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진 화엄법석을 회향했다. 성파 스님은 법에서 "일체 존재가 모두 부처라는 진리를 바로 알아 대웅맹심, 대신심으로 해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법회가



끝난 뒤 참석 대중은 10만 영가 위패를 소지하며 유주무주 고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화엄산림의 모든 일정을 회향했다. 부산지사=박동범 지사장

## 팔공총림 동화사, 천주교 대구교구청 방문

12월20일, 종교간 화합 다짐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20일 천주교 대구대교구청을 방문<사진>, 조환길 대주교를 만나 종교간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효광 스님은 "크리스마스가 종교간 갈등을 없애고 인류가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환길 대주교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기 위해



서는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효광 스님은 발우를, 조환길 대주교는 성모당 모형을 선물로 교환하며 우의를 다졌다. 대구지사=김영각 지사장

## 부산 원오사,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봉행

동지 맞아 2380만원 전달

부산 원오사(주지 정광 스님)는 12월22일 대웅전에서 '명정장학재단 2019 동지 장학금 나눔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동부산대 불교동아리 우수활동자 5명에 각 30만원, 대학생 8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부 11명에 각 50만원, 중등부 8명에게 각 30만원, 만학부 2명에게 각 20만원, 명정지역아동센터에 6개월 지원금 600만원 등 총 2380만원의 장학금을 전



달했다. 원오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동지에 장학금 전달해왔다. 이대호 롯데디자인츠 선수가 참석,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부산지사=박동범 지사장

## 광주불교연, 사부대중 1000여명과 성도재일 봉축

12월26일 연합법회 봉행  
학생 10명에게 장학금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 스님)는 12월26일 광주시청 3층 대강당에서 '불기 2564년 성도재일 연합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범종 3타로 시작된 연합법회에서는 불교종립 학교인 세지중학교 오케스트라단 65명의 연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도재일을 축하했다.



법회에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주지 진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벽산학원 세지중학교 이

사장 원일, 불교회관추진단장 도계(소원정사 주지), 광주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보은, 태고종광주전남총무원장 월인 스님 등 광주지역 스님 100여명과 이범식 광주불교신도회장, 강윤구 포교사단 광주지역단장, 이용섭 광주시장, 천정배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국 사회는 그동안 남북 분단으로 인해 극심한 좌우분열, 동서

갈등의 아픔을 담고 있었다"며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통해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의 가르침을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한반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2019 빛고을불자대상'과 '2019 빛고을관동회 봉축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빛고을불자대상은 남성숙 광주매일신문사 대표가, 빛고을관동회 봉축대상은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스님) 정광고(교장 함병권)가 수상했다. 또 광주불교승보회(회장 도성 스님)가 이시영 동강대 학생을 대표로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용훈 기자 booril3@beopbo.com

## 산타 변신 스님들 시민들에 따뜻한 음식 선물

마이산탐사·쌍봉사, 봉사박람회

마이산탐사(주지 진성 스님)와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2월24일 진안군민자치센터 광장에서 사자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용진)가 주관한 제1회 진안군크리스마스 자원봉사박람회에 동참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님들은 산타복장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마이산탐사에서는 태고떡볶이<사진>와 어묵을 준비해 음



식으로 정을 나눴다. 쌍봉사도 크리스마스 팔찌 체험부스를 만들어 종교를 뛰어넘는 봉사체함에 동참했다. 신용훈 기자 booril3@beopbo.com

2020  
庚子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法主寺

조실 천호 월서  
회주 미룡 월란  
주지 무산 정도

사부대 중일 동

주소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전화 043)543-3615    www.beopjusa.or.kr